

1. 현직 경북대병원 의사 정호영 논란에 반박

연합뉴스 2022.04.16 16:55

- 댓글 26
 - 91
 - 공유
- "휴식 위해 재미동창회 참석하고픈 병원장 없어"



민주당, 경북대에 정호영 의혹검증 자료 요청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15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을 찾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의혹을 검증할 자료를 학교 측에 요구하고 있다. 2022.4.15 mtkht@yna.co.kr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자녀들을 둘러싼 의혹에 경북대병원 현직 의사가 반박에 나섰다.

이재태 경북대병원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자가 '공무 출장'을 이유로 떠난 경북대병원 재미동창회 유흥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나도 재미동창회에 참석해본 적이 있지만 개인의 휴식을 위해 재미동창회에 참석하고픈 병원장, 학장은 없다"면서 "재미동창회가 많은 학생 장학금과 교수 연수 지원 등을 해주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모교 현황을 보고해 장학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매년 초청을 받고 가게되면 학교나 병원에서 출장처리를 해준다"며 "학과와 병원장은 연로하신 동창분들 댄스파티 자리에서 무대로 불러나가 노래도 불러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재미동창들이 올린 모임 사진 중 (언론에서)병원장(정 후보자)이 무대로 불러나가 노래부르는 사진을 올려 그의 흥청망청을 저격한다"고 반박했다.

또 "병원장과 지금 의과대학장인 박태인 교수는 골프를 치지도 않는 사람이다. 70~80 대 동문들의 골프 일정을 다운로드 받아 학장과 병원장의 공금을 이용한 관광이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병역 신체 검사에는 국공립 병원을 비롯한 3 차병원 진단서를 제출한다"며 "경북대 재학생은 경북대병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받는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가 경북대학교수라고 영남대나 계명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나. 병역 관련 진단서는 교수들도 극히 조심한다. 휘말리면 의사면허가 박탈당하고 감옥도 가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경북대 총장을 비롯한 수많은 교수 자녀가 의대와 의전원 편입 시험에 응시해 낙방한 것을 봤다"며 "그 누구도 영향을 줄 순 없다. 그게 아비가 죽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 교수는 현재 경북대병원 핵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앞서 전국 1 호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장과 대한핵의학회, 대한갑상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psjpsj@yna.co.kr

(끝)

양식의 맨 위	
검색	
	양식의 맨 아래
•	오늘
•	랭킹뉴스
•	이슈픽
•	정치
•	경제
•	사회
•	세계
•	IT
•	포토
•	TV



머리 쓰담쓰담에
스트레스 제로! 41%

시이아이

2. [단독]'아빠찬스' 논란 정호영..."아버로서 고통, 사퇴의사 밝혀"

중앙일보 2022.04.16 15:11 최종수정 2022.04.16 16:13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대구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자신의 사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지인 A 씨는 "이날 두 차례 정 후보자와 전화 통화를 했고, 정 후보자가 사퇴 이야기를 직접 꺼냈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지인과의 통화에서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제 그만 (대구로) 내려가고 싶다며 사퇴 의사를 인수위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하지만 인수위 측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만큼 청문회까지 해보자고 했다. 이번 주말 중에는 어떠한 결정이든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나는 당당하지만 아들과 딸이 너무 힘들어한다. 그것이 자식을 둔 아버지로 고통이다. 사실을 설명하고 알려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인 A 씨는 "청문회를 통과해 설사 장관이 된다 해도 계속 힘든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사퇴를 그만 결정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A 씨에 따르면 "그동안 다른 지인들도 '이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상당히 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자녀들의 의대 편입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2017~2018 학년도에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아들(31)과 딸(29)이 아버지가 재직 중인 병원에서 같은 기간 봉사활동 하고, 아들은 대학생 신분일 때 공동저자로 논문 두 편을 등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들의 병역 관련 신체검사에도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여러차례 "특혜는 전혀 없다"면서 관련 입장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수차례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 후보자 자녀들의 아빠 찬스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정이라는 인사 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장관으로서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라며 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경북대 병원을 방문해 홍원화 경북대 총장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간담회 후 “봉사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해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구의 요청으로 학부생을 논문 공동 저자로 참여시켰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구=김윤희기자 youknow@joongang.co.kr